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본 가족돌봄 서비스의 전망 : D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 중심으로

이 혜 미(경희대 박사과정) · 오 윤 자(경희대 교수) · 김 보 미(경희대 석사과정)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기능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으로서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핵심정책과제로 자녀돌봄강화를 중심으로 자녀돌봄의 다양화 및 부모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2007년 38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바 있으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에 근거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취업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하며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로 하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 유형에 따라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등·하원(교) 동행, 학습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둘째, 서비스 이용사유를 살펴보고 셋째, 이용자가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가족돌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내 돌봄의 탄력적 서비스 욕구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D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개한 아이돌봄사업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첫째, 사업추진 결과 및 이용자가정 현황으로 빈도를 산출 둘째, 서비스 만족도를 알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 셋째, 건의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아이돌봄지원을 포함한 가족돌봄 욕구를 탐색하였다. 모든 내용은 2012년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봄지원사업 실태는 시간제가정수 1,377가정(가형 667가정, 나형 162가정, 다형 114가정, 라형 434가정), 시간제연계수 14,107건, 종일제가정수 177가정(가형 23가정, 나형 27가정, 다형 18가정, 라형 109가정) 나타났다. 이용사유 실태는 직장근무(65.5%), 자녀양육부담(21.2%), 교육참여(9.4%), 병원치료(1.6%), 산후후유증(1.3%), 가족행사(1%)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만족도는 100점에서 78점으로 분포, 평균 92.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모니터링가정 418가정(73.46%)의 건의사항 17개 영역에 있어서 연간 이용시간 확대, 저녁시간 연계 어려움, 아이돌보미 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 및 시사점으로 양육부담의 경감, 돌보미의 아이돌봄 질함 등으로 나타나 개별돌봄서비스 활성화가 보호돌봄의 초기적 특성에서 전문돌봄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돌보미교사의 공적육아지원인력로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의 긍정성 확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